

Methodology Book

KFR 유형분류 기준과 방법론

본 문서는 당사의 재산입니다. 본 문서는 펀드평가 업무보고를 위한 것으로 내부 개발 계획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목적 이외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제, 복사하여 배포 또는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귀사의 대외비 정보 또는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012 Korea Fund Ratings Co.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Korea Fund Ratings Co. Reproduction or transcription by any mean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Korea Fund Ratings Co, is prohibited.

Contents

1. 유형분류	3
1.1. 개요	3
1.2. 유형분류의 목적	3
1.3. 유형분류 대상 펀드	3
1.4. 당사의 유형분류 기준	5
2. 벤치마크(BM)	12
2.1. 유형별 벤치마크(BM)	12
2.1.1. BM의 설정기준 세부적용 방법	12
2.1.2. 국내펀드의 유형별 BM	13
2.1.3. 해외펀드의 유형별 BM	15
3. 성과평가	19
3.1. 수익률	19
3.1.1. 일간수익률	19
3.1.2. 유형수익률	19
3.2. 위험지표 및 위험조정지표	21
4. 펀드RATING	24
4.1. KFR 펀드등급 개요	24
5. 자료제공 및 공시	26
5.1. 평가 자료의 제공 및 공시	26

Tables

[표 1-1] 유형분류 대상 펀드	4
[표 1-2] KFR 공모펀드 유형분류	5
[표 1-3] KFR 공모펀드 유형분류 기준	7
[표 2-1] 국내펀드의 유형별 BM	13
[표 2-2] 해외펀드의 유형별 BM	15
[표 3-1] 위험지표	21
[표 3-2] 위험조정지표	22
[표 4-1] 펀드 등급 산출대상 및 등급 개요	24
[표 4-2] 등급 요소별 의미 및 대상 지표	24

1. 유형분류

1.1. 개요

- 한국펀드평가는 신뢰성, 비교가능성, 실용성을 기본철학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펀드평가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 및 평가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객관적인 펀드평가를 위해 일관된 기준 하에 개별펀드를 그룹화하고, 이러한 펀드유형분류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펀드그룹(유형)과 각 개별펀드와의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계량 데이터를 생성한다. 펀드의 유형분류는 펀드 통계량 처리, 벤치마크와 비교분석 및 펀드평가의 핵심인 등급부여(Fund Rating)와 같은 펀드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된다.

1.2. 유형분류의 목적

- 펀드 유형분류의 목적은 유사한 운용자산 및 운용전략을 가진 펀드들을 동일한 유형으로 그룹화하여 유형대비 개별펀드의 성과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펀드평가의 기초데이터로 삼기 위함이다. 또한, 당사는 유형별 해당 펀드유형의 특성에 알맞은 벤치마크를 설정하여 개별펀드의 상대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 체계적인 펀드유형분류를 통해 산출된 펀드데이터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1.3. 유형분류 대상 펀드

- 유형수익률은 기본적으로 평가대상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대상 펀드 중 신규설정펀드, 운용/모펀드, 순자산 제한 등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유형수익률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 유형기간수익률, 유형성과지표 등은 유형수익률(일일 수익률)을 기초로 하며, 유형 내 펀드 수익률 순위의 경우 유형수익률에 포함된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해당 펀드가 운용기간 중 평가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한 기간수익률은 순위 산출에서 제외한다. 즉, 평가 제외 대상이었던 펀드는 설정기간보다 기간수익률 산출 기간이 짧을 수 있다.
- 유형수익률 산출 시 적용되는 평가 제외 이외의 사항들(신규설정펀드, 운용/모펀드,

순자산 제한)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표 1-1] 유형분류 대상 펀드

구분	방법론
신규설정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제외 기간: 2주 - 클래스펀드, 복사펀드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시키지 않음¹ - 클래스펀드는 운용펀드가 매핑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외함²
운용펀드/ 모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협회의 간접투자기구 분류코드 기준³으로 운용펀드와 모펀드는 유형수익률에서 제외 - 일반펀드가 운용펀드/모펀드로 변경 시 일반펀드인 기간은 유형수익률에 포함시키고, 변경 이후 시점부터 유형수익률에서 제외함
운용규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밀리펀드 규모: 순자산(NAV) 기준 ➢ 운용/클래스 펀드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밀리펀드 기준으로 채권형(MMF형 포함)인 경우 50억 이상, 그 외 유형은 10억 이상임 - 패밀리펀드가 순자산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클래스 펀드는 모두 포함함 - 운용펀드가 매핑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 펀드의 경우,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자체의 순자산으로 운용규모 제약을 확인함⁴ ➢ 그 외 펀드(자펀드⁵, 일반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펀드별로 50억, 10억 기준을 적용함
기준가 중단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가가 재시작한 경우 신규펀드로 인식하여 2주간의 유예기간 적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운용 중인 펀드이므로 포트폴리오 구성 등 별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 ➢ 평가전환(미평가에서 평가로 전환된 경우): 즉시 유형수익률 산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구성 등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갖추어졌다는 의미이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

¹ 펀드 운용의 입장에서 즉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운용펀드 편입만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완료됨), 펀드평가 입장에서 운용펀드 또는 복사 대상 펀드와 동일한 유형에 편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음.

² 운용펀드가 매핑되지 않은 클래스 펀드의 경우 신규설정펀드의 유형 제외 기간을 적용함. 펀드평가본부의 업무 처리상 운용펀드의 매핑이 신규 설정일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핑되지 않았던 기간은 유형 제외이며, 매핑된 시점부터 유형으로 포함됨. 단, 운용펀드 매핑 후 재작업(재산출)을 하게 되면, 설정시점부터 유형에 포함됨.

³ 운용펀드는 2014년 4월 14일부로 집합투자기구 분류코드(14차 분류코드) 기준 5차 분류가 운용펀드(1)인 경우에 해당하며, 모펀드는 4차 분류가 모신탁(2)에 해당하는 펀드임.

⁴ 신규설정펀드 유형 제한 방법론과 동일하게 펀드평가본부의 업무처리상 운용펀드 매핑이 설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매핑이 되지 않은 기간은 일반펀드 방법론, 매핑된 이후는 운용/클래스 방법론을 따름(재산출의 경우 설정 시점부터 운용/클래스 펀드 방법론을 따르게 됨).

⁵ 모펀드는 유형수익률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순자산 제한을 확인하지 않음.

1.4. 당사의 유형분류 기준

- 당사의 유형분류는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근거하여 분류한 후,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는 해당 운용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유형을 확정한다.
- 유형분류
 - ❖ 운용사가 공시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상의 특성에 근거하여 펀드의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으로 펀드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유형을 확정한다.

분류의 핵심: 개별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확보

[표 1-2] KFR 공모펀드 유형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내주식형	Active주식형	일반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섹터주식형
		배당 주식형
		주식기타형(테마)
	Passive주식형	주식KOSPI200인덱스
		주식기타인덱스
		주식ETF
		KRX300
국내채권형	국공채권	국공채 단기
		국공채 일반
	회사채권	회사채 단기
		회사채 일반
	일반채권	일반채 단기
		일반채 일반
하이일드채권	국내채권형-하이일드채권	
기타채권	기타채권	
	채권ETF	
MMF	MMF	MMF
		MMF-ETF
국내혼합형	주식혼합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혼합형
	자산배분형	자산배분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타혼합형	기타혼합형	
국내대체투자형	부동산	부동산	
	ELF	ELF 기타	
	특별자산형	특별자산형	
	기타형	기타대체투자형	
국내 단기미분류			
국내 미분류			
해외주식형	국가별 해외주식형	중국 주식형	
		브라질 주식형	
		러시아 주식형	
		미국 주식형	
		일본 주식형	
		인도 주식형	
		베트남 주식형	
		기타국가별 주식형	
		섹터별 해외주식형	에너지 섹터형
			기초소재 섹터형
			제조산업재 섹터형
			경기관련 소비재 섹터형
			헬스케어 섹터형
			금융섹터형
정보기술 섹터형			
공공 서비스 섹터형			
필수 소비재 섹터형			
전기통신 서비스 섹터형			
복합/기타 섹터형			
권역별 해외주식형	글로벌 주식형		
	유럽 주식형		
	선진국 주식형		
	아시아태평양 주식형		
	아시아태평양 주식형(일본제외)		
	동남아 주식형		
	신흥국 주식형		
	아시아 신흥국 주식형		
	유럽 신흥국 주식형		
	남미 신흥국 주식형		
기타 지역 주식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타 해외주식형	기타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글로벌 채권형	글로벌 채권형	
		글로벌 채권형 - 하이일드채권	
	북미채권	북미채권	
	신흥국채권	신흥국채권	
	유럽채권	유럽채권	
	아시아채권	아시아채권	
	아시아채권(일본제외)	아시아채권(일본제외)	
	남미신흥국채권	남미신흥국채권	
	기타지역채권	기타지역채권	
해외혼합형	해외 주식혼합형	해외 주식혼합형	
	해외 채권혼합형	해외 채권혼합형	
	해외 자산배분형	해외 자산배분형	
	해외 기타혼합형	해외 기타혼합형	
	해외 TDF	해외 TDF	해외 TDF
		해외 TDF 2020	해외 TDF 2020
		해외 TDF 2025	해외 TDF 2025
		해외 TDF 2030	해외 TDF 2030
		해외 TDF 2035	해외 TDF 2035
		해외 TDF 2040	해외 TDF 2040
해외 TDF 2045		해외 TDF 2045	
해외 TDF 2050		해외 TDF 2050	
해외 TDF 기타	해외 TDF 기타		
해외 대체투자형	해외 부동산형	해외 부동산형	
	해외 특별자산형	해외 특별자산형	
	해외 기타형	해외 기타형	
해외 단기미분류			
해외 미분류			

[표 1-3] KFR 공모펀드 유형분류 기준

분류	분류 기준
국내 주식형	국내주식관련 위험자산의 최저투자한도가 60% 이상인 펀드
Active주식형	국내주식관련 위험자산의 최저투자한도가 60% 이상이며, 적극적인운용을 통해 시장수익률의 초과 달성을 추구하는 펀드
일반주식형	특정 섹터나, 스타일에 치중하지 않고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펀드

분류	분류 기준
중소형주식형	국내 주식 중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섹터주식형	특정 섹터에 속하는 기업들의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배당 주식형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주식기타형(테마)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Active주식형
Passive주식형	국내 특정 지수를 추종하거나 복제전략을 사용하는 Passive 주식형 펀드
주식KOSPI200인덱스	KOSPI200 지수의 종목 구성을 복제하여 해당 지수의 수익률/초과 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
주식기타인덱스	특정 지수의 종목 구성을 복제하여 해당 지수의 수익률/초과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
주식ETF	특정 지수의 종목을 추종하거나 복제전략을 사용하는 주식 상장집합투자기구 펀드
KRX300	KRX300 지수의 종목 구성을 복제하여 해당 지수의 수익률/초과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
국내 채권형: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채권의 최저투자한도가 60%이상인 펀드	
국공채권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채권의 최저 투자한도가 60%이상이며, 채권 내 국공채 투자비율이 60%이상인 펀드
국공채 단기	국내 채권 중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고, 타겟듀레이션이 1년 이하인 채권형펀드
국공채 일반	국내 채권 중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회사채권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채권의 최저 투자한도가 60%이상이며, 채권 내 회사채 투자비율이 60%이상인 펀드
회사채 단기	국내 채권 중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고, 타겟듀레이션이 1년 이하인 채권형펀드
회사채 일반	국내 채권 중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일반채권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채권의 최저 투자한도가 60%이상이며, 국공채나 회사채에 대한 제한 없이 투자비율이 60%이상인 펀드
일반채 단기	국내 채권 중 일반채에 주로 투자하고, 타겟듀레이션이 1년 이하인 채권형펀드
일반채 일반	국내 채권 중 일반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국내채권형-하이일드채권	투기등급(BB+이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채권형펀드
기타채권	다른 채권유형에 편입 되지 않는 펀드
채권ETF	특정 지수의 종목을 추종하거나 복제전략을 사용하는 채권 상장집합투자기구 펀드
MMF: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한 펀드	
MMF	주된 투자대상이 단기 금융상품(CD, CP, CALL 등)인 펀드
MMF-ETF	단기금융상품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집합투자기구 펀드
국내혼합형: 국내 채권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주식혼합형	국내 주식관련 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나 채권 등 안정자산에도 투자하는 펀드
채권혼합형	국내 채권 등 안정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나 주식관련 위험자산에도 투자하는 펀드
자산배분형	시장상황에 따라 위험자산비율과 안정자산 비율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자산배분하거나 3개 이상의 자산군에 투자하는 펀드
기타혼합형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혼합형 펀드
대체투자형: 부동산, 실물자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펀드	
부동산	국내 부동산 실물 또는 관련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

분류	분류 기준
ELF	주가지수나 특정 증권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ELS)이나 이를 결합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이를 복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특별자산	실물자산에 투자하면서 가치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기타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 대체투자형 펀드
해외주식형: 해외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투자한 펀드	
국가별해외주식형	특정 국가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해당자산의 최저투자한도가 60%이상인 펀드
중국 주식형	중국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브라질 주식형	브라질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러시아 주식형	러시아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미국 주식형	미국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일본 주식형	일본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인도 주식형	인도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베트남 주식형	베트남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기타국가별 주식형	기타 국가의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섹터별해외주식형	
에너지 섹터형	특정 섹터 관련 기업의 글로벌주식(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해당자산의 최저투자한도가 60% 이상인 펀드
기초소재 섹터형	에너지 및 기초소재 산업 관련 기업의 글로벌주식을 주로 운용하는 펀드로 "원자재섹터"를 포함한다(에너지섹터 비중이 큰 경우 분류).
제조산업재 섹터형	에너지 및 기초소재 산업 관련 기업의 글로벌주식을 주로 운용하는 펀드로 "원자재섹터"를 포함한다(기초소재섹터 비중이 큰 경우 분류).
제조산업재 섹터형	제조 관련 기업의 글로벌주식을 주로 운용하는 펀드
경기관련 소비재 섹터형	경기관련소비재 기업의 글로벌주식을 주로 운용하는 펀드
헬스케어 섹터형	헬스 케어 관련 기업의 글로벌주식을 주로 운용하는 펀드
금융섹터형	금융 관련 기업의 주식을 주로 운용하는 펀드
정보기술 섹터형	기술정보 관련 기업의 글로벌주식을 주로 운용하는 펀드
공공서비스 섹터형	공공서비스 관련 기업의 글로벌주식을 주로 운용하는 펀드
필수소비재 섹터형	필수소비재 관련 기업의 글로벌주식을 주로 운용하는 펀드
전기통신 서비스 섹터형	전기통신 관련 기업의 글로벌주식을 주로 운용하는 펀드
복합/기타 섹터형	2~3가지 섹터에 포함되는 글로벌주식을 주로 운용하는 펀드 또는 상위섹터에 포함되지 않는 섹터 집중형 펀드
권역별해외주식형	
글로벌 주식형	특정 권역 글로벌주식(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해당자산의 최저투자한도가 60%이상인 펀드
유럽 주식형	글로벌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유럽 주식형	유럽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선진국 주식형	선진국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아시아태평양 주식형	아시아 태평양지역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아시아태평양 주식형 (일본제외)	아태(일본제외)지역지역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동남아 주식형	동남아시아지역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분류	분류 기준
신흥국 주식형	신흥국지역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아시아 신흥국 주식형	아시아 신흥국지역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유럽 신흥국 주식형	유럽 신흥국지역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남미 신흥국 주식형	남미 신흥국지역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기타 지역 주식형	이외 특정지역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기타 해외주식형	국가/섹터/권역별로 분류가 되지 않는 기타 해외주식형 펀드
해외채권형: 해외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글로벌 채권	글로벌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글로벌 채권형-하이일드	투기등급(BB+이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채권형 펀드
북미채권	북미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신흥국채권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유럽채권	유럽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아시아채권	아시아지역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아시아채권(일본제외)	일본제외 아시아지역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남미신흥국채권	남미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기타지역채권	해외채권형 펀드이며, 상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펀드
해외혼합형: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짓지 않으며, 채권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해외 주식혼합형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짓지 않으며, 주식관련 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채권에도 투자하는 펀드
해외 채권혼합형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짓지 않으며,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국내외 주식관련 위험자산에도 투자하는 펀드
해외 자산배분형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짓지 않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위험자산비율과 안정자산 비율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자산배분하거나 3개 이상의 자산군에 투자하는 펀드
해외 기타혼합형	위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해외 기타혼합형
해외 TDF	투자대상을 국내로 한정 짓지 않으며, TargetDate를 설정해두고 Glidepath에 따라 자산배분하는 공모펀드
해외 TDF 2020	투자대상을 국내로 한정 짓지 않으며, TargetDate를 2020년으로 설정해두고 Glidepath에 따라 자산배분하는 공모펀드
해외 TDF 2025	투자대상을 국내로 한정 짓지 않으며, TargetDate를 2025년으로 설정해두고 Glidepath에 따라 자산배분하는 공모펀드
해외 TDF 2030	투자대상을 국내로 한정 짓지 않으며, TargetDate를 2030년으로 설정해두고 Glidepath에 따라 자산배분하는 공모펀드
해외 TDF 2035	투자대상을 국내로 한정 짓지 않으며, TargetDate를 2035년으로 설정해두고 Glidepath에 따라 자산배분하는 공모펀드
해외 TDF 2040	투자대상을 국내로 한정 짓지 않으며, TargetDate를 2040년으로 설정해두고 Glidepath에 따라 자산배분하는 공모펀드
해외 TDF 2045	투자대상을 국내로 한정 짓지 않으며, TargetDate를 2045년으로 설정해두고 Glidepath에 따라 자산배분하는 공모펀드
해외 TDF 2050	투자대상을 국내로 한정 짓지 않으며, TargetDate를 2050년으로 설정해두고 Glidepath에 따라 자산배분하는 공모펀드

분류	분류 기준
해외 대체투자형: 해외 실물자산이나 대체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	
해외 부동산형	해외 부동산 실물 또는 사업,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
해외 특별자산형	글로벌 실물자산 또는 글로벌 상품 기반 파생상품(인덱스 등)에 투자하는 펀드
해외 기타형	위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기타 해외 대체투자형 펀드

벤치마크(BM)

1.5. 유형별 벤치마크(BM)

- 당사의 유형분류 체계에 각 유형 별로 적정 벤치마크 지수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각 유형별로 일정기간 얻은 수익률의 크기가 어느 수준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펀드평가는 유형별 벤치마크 지수를 생성하는데 시장 인덱스를 이용한다.
- 각 유형 별 포트폴리오 비중 특성에 따라 하나의 자산군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 자산군 유형과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혼합 자산군 유형으로 구분한 뒤, 단일 자산군 유형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장 인덱스를, 혼합 자산군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시장 인덱스를 적절히 가공한 형태로 해당 유형의 벤치마크 지수를 사용한다.

1.5.1. BM의 설정기준 세부적용 방법

- 국내펀드 BM 적용
국내 펀드 공시 기준가는 판매 기준가로 운용일과 차이가 있으므로 펀드 기준가와 시장 BM일자를 그대로 일치시킬 수 없다. 따라서, 펀드 기준일과 시장 BM일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 펀드 기준일의 BM 적용일 = 펀드 기준일 - 1영업일
 - ✓ 펀드 적용 BM 의 일 수익률 = (펀드 기준일 - 1영업일)의 BM 지수 / (펀드 기준일 - 1영업일)의 전영업일 BM 지수
- 해외펀드 BM 적용
해외펀드는 펀드의 시차를 고려하여 투자권역에 따라 시장 BM 적용일자를 다르게 적용해왔으나, 기준가 컷오프 도입⁶으로 모든 해외펀드의 시장 BM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 해외 펀드 기준일의 BM 적용일 = 펀드 기준일 - 2영업일
 - ✓ 해외 펀드 적용 BM 의 일 수익률 = (펀드 기준일 - 2영업일)의 BM 지수 / (펀드 기준일 - 2영업일)의 전영업일 BM 지수
 - ✓ 단, FoFs의 경우 위의 기준에서 1 영업일 Delay

⁶ 2020.10.05 기준가 컷오프 도입으로 아시아권역의 시장 BM을 '펀드 기준일 -1영업일' 적용 → '펀드 기준일 - 2영업일'로 변경함.

1.5.2. 국내펀드의 유형별 BM

[표 0-1] 국내펀드의 유형별 BM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BM지수	
국내주식형	Active주식형	일반주식형	KOSPI200	
		중소형주식형	Customized 중소형지수	
		섹터주식형	KOSPI200	
		배당 주식형	KOSPI고배당50지수	
		주식기타형(테마)	KOSPI200	
		Passive주식형	KOSPI200	
	국내채권형	국공채권	주식KOSPI200인덱스	KOSPI200
			주식기타인덱스	KOSPI200
			ETF	KOSPI200
		회사채권	국공채권	KIS종합채권지수
			회사채권	KIS국공채 종합
일반채권	국공채 단기	KIS국공채 만기 3개월~1년		
	국공채 일반	KIS국공채 종합		
	회사채권	KIS회사채 종합		
하이일드채권	회사채 단기	KIS회사채 만기 3개월~1년		
	회사채 일반	KIS회사채 종합		
기타채권	일반채권	KIS종합채권지수		
	일반채 단기	KIS단기지수 (3M-1Y)		
	일반채 일반	KIS종합채권지수		
MMF	하이일드채권	회사채 BBB(공모무보증)	KIS회사채BBB(공모무보증)	
		국내채권형-하이일드채권	KIS회사채BBB(공모무보증)	
	기타채권	기타채권	KIS종합채권지수	
국내혼합형	MMF	채권ETF	KIS종합채권지수	
		MMF	MMI지수, KIS-MMF지수	
		MMF	MMI지수, KIS-MMF지수	
		ETF	MMI지수, KIS-MMF지수	
			50% KOSPI200+	
			50% KIS종합지수1Y이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BM지수
	주식혼합형		50% KOSPI200+
			50% KIS종합지수1Y이하
	주식혼합형	주식혼합형	50% KOSPI200+
			50% KIS종합지수1Y이하
채권혼합형	채권혼합형		20% KOSPI200+
			80% KIS종합지수1Y이하
	채권혼합형	채권혼합형	20% KOSPI200+
			80% KIS종합지수1Y이하
자산배분형	자산배분형		50% KOSPI200+
			50% KIS종합지수1Y이하
	자산배분형	자산배분형	50% KOSPI200+
			50% KIS종합지수1Y이하
기타혼합형	기타혼합형		50% KOSPI200+
			50% KIS종합지수1Y이하
	기타혼합형	기타혼합형	50% KOSPI200+
			50% KIS종합지수1Y이하
국내대체투자형			KOSPI200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KIS종합채권지수
			KIS종합채권지수
ELF	ELF기타	ELF	BM없음
			BM없음
특별자산형	특별자산형	특별자산형	KIS종합채권지수
			KIS종합채권지수
기타형	기타대체투자형	기타형	KIS종합채권지수
			KIS종합채권지수

1.5.3. 해외펀드의 유형별 BM

[표 0-2] 해외펀드의 유형별 BM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BM지수
해외주식형	국가별해외주식형	중국 주식형	MSCI CHINA
		브라질 주식형	MSCI BRAZIL
		러시아 주식형	MSCI RUSSIA
		미국 주식형	MSCI USA
		일본 주식형	MSCI JAPAN
		인도 주식형	MSCI INDIA
		베트남 주식형	MSCI Vietnam
		기타국가별 주식형	MSCI all country world free index
		섹터별해외주식형	에너지 섹터형
	기초소재 섹터형		ACWI_Materials
	제조산업재 섹터형		ACWI_Industrials
	경기관련 소비재 섹터형		ACWI_Consumer DISCR
	헬스케어 섹터형		ACWI_Healthcare
	금융섹터형		ACWI_Financials
	정보기술 섹터형		ACWI_Information TECH
	공공 서비스 섹터형		ACWI_Utilities
	필수 소비재 섹터형		ACWI_Consumer STAPLES
	전기통신 서비스 섹터형		ACWI_Telecom SVC
	복합/기타 섹터형		MSCI all country world free index
	권역별해외주식형	글로벌 주식형	MSCI all country world free index
		유럽 주식형	MSCI EUROPE(USD)
		선진국 주식형	MSCI World USD Index
		아시아태평양 주식형	MSCI AC PACIFIC
		아시아태평양 주식형(일본제외)	MSCI AC PACIFIC ex JAPAN
		동남아 주식형	MSCI AC PACIFIC ex JAPAN
		신흥국 주식형	MSCI EM
		아시아 신흥국 주식형	MSCI EM ASIA
유럽 신흥국 주식형		MSCI EM EUROP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BM지수
		남미 신흥국 주식형	MSCI EM LATIN AMERICA
		기타 지역 주식형	MSCI all country world free index
	기타 해외주식형		MSCI all country world free index
		기타 해외주식형	MSCI all country world free index
해외채권형			Merrill Lynch Global Broad Market Index(USD)
	글로벌 채권형		Merrill Lynch Global Broad Market Index(USD)
		글로벌 채권형	Merrill Lynch Global Broad Market Index(USD)
		글로벌 채권형-하이일드채권	Merrill Lynch Global High Yield Index
	북미채권		Merrill Lynch Developed Markets(USD)
		북미채권	Merrill Lynch Developed Markets(USD)
	신흥국채권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
		신흥국채권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
	유럽채권		Merrill Lynch Developed Markets(USD)
		유럽채권	Merrill Lynch Developed Markets(USD)
	아시아채권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
		아시아채권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
	아시아채권(일본제외)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
		아시아채권(일본제외)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
	남미신흥국채권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
		남미신흥국채권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
	기타지역채권		Merrill Lynch Global Broad Market Index(USD)
		기타지역채권	Merrill Lynch Global Broad Market Index(USD)
해외혼합형			50% MSCI ACWI + 50% KIS종합1년지수
	해외 주식혼합형		50% MSCI ACWI + 50% KIS종합1년지수
		해외 주식혼합형	50% MSCI ACWI + 50% KIS종합1년지수
	해외 채권혼합형		20% MSCI ACWI + 80% KIS종합1년지수
		해외 채권혼합형	20% MSCI ACWI + 80% KIS종합1년지수
	해외 자산배분형		50% MSCI ACWI + 50% KIS종합1년지수
		해외 자산배분형	50% MSCI ACWI + 50% KIS종합1년지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BM지수
	해외 기타혼합형		50% MSCI ACWI + 50% KIS종합1년지수
		해외 기타혼합형	50% MSCI ACWI + 50% KIS종합1년지수
	해외 TDF		유형평균
		해외 TDF 2020	유형평균
		해외 TDF 2025	유형평균
		해외 TDF 2030	유형평균
		해외 TDF 2035	유형평균
		해외 TDF 2040	유형평균
		해외 TDF 2045	유형평균
		해외 TDF 2050	유형평균
		해외 TDF 기타	유형평균
해외대체투자형			MSCI all country world free index
	해외 부동산형		Merrill Lynch U.S REITs Index
		해외 부동산형	Merrill Lynch U.S REITs Index
	해외 특별자산형		KIS종합채권지수
		해외 특별자산형	KIS종합채권지수
	해외 기타형		MSCI all country world free index
		해외 기타형	MSCI all country world free index

* 신흥국채권의 BM의 경우 2013년 11월 13일까지는 JPMORGAN EMBI GLOBAL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JP MORGAN에서 지수 공개를 중단하여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로 BM을 변경함.

* 해외채권의 BM의 경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WBIG(Citi World Broad Investment-Grade Bond Index)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Citi에서 지수 공개를 중단하여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로 BM을 변경함.

* 글로벌 채권의 BM의 경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WBIG(Citi World Broad Investment-Grade Bond Index)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Citi에서 지수 공개를 중단하여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로 BM을 변경함.

* 북미채권의 BM의 경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WBIG NORTH AMERICA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Citi에서 지수 공개를 중단하여 Merrill Lynch Developed Markets(USD)로 BM을 변경함.

* 유럽채권의 BM의 경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WBIG EASTERN EUROPE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Citi에서 지수 공개를 중단하여 Merrill Lynch Developed Markets(USD)로 BM을 변경함.

* 아시아채권의 BM의 경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WBIG ASIA L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Citi에서 지수 공개를 중단하여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로 BM을 변경함.

* 아시아채권(일본제외)의 BM의 경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Non-JPY WorldBIG Index, Asia Issuers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Citi에서 지수 공개를 중단하여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로 BM을 변경함.

* 남미신흥국채권의 BM의 경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WBIG LATIN AMERICA/CARIBBEAN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Citi에서 지수 공개를 중단하여 Merrill Lynch Global Emerging Market Credit(Government Bond Index)로 BM을 변경함.

* 기타지역채권의 BM의 경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WBIG(Citi World Broad Investment-Grade Bond Index)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Citi에서 지수 공개를 중단하여 Merrill Lynch Global Broad Market Index(USD)로 BM을 변경함.

* 배당주식의 BM의 경우 2015년 12월 21일까지는 KODI(배당지수)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수 공개를 중단하여 KOSPI고배당50으로 BM을 변경함

* 중소형 주식의 BM의 경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KOSPI+KOSDAQ(시가비중)을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중소형주의

속성 및 투자전략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Custmized 중소형지수(중소형지수 x 80% + 대형주 x 10% + KOSDAQ100 x 10%)로 BM을 변경함

* 해외 부동산 BM의 경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DWGRTT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지수제공업체(Index Provider)의 변경으로 The BofA Merrill Lynch US REITs Index로 BM을 변경함

* 해외 TDF BM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배분이 변동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각 유형의 평균을 BM으로 선정함.

성과평가

1.6. 수익률

1.6.1. 일간수익률

- 한국펀드평가는 펀드 수익률 산출 시 시간가중수익률을 적용한다.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기준가격으로 산출되며, 결산 시에는 분배율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R_t = \frac{P_t \times (1 + D_t)}{P_{t-1}} - 1$$

Where $R_t = t$ 일의 펀드 일 수익률

$P_t = t$ 일의 펀드 기준가, $P_{t-1} = t$ 일의 전 영업일 펀드 기준가

$D_t = t$ 일의 분배율

1.6.2. 유형수익률

- 한국펀드평가는 유형 수익률 산출 시 당일 순자산과 수정 순자산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펀드의 일 수익률 산출과 같이 순자산과 설정액을 사용하여 수익률을 산출하는 경우 결산 시 수익률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반영한 수정 순자산을 산출한다.

$$MN_t = \frac{NAV_t}{1 + R_t}$$

Where $MN_t = t$ 일의 펀드 일 수정 순자산

$R_t = t$ 일의 펀드 일 수익률

$NAV_t = t$ 일의 펀드 일 순자산

- 유형수익률 수정순자산과 순자산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R_{ct} = \frac{\sum_{i=1}^n NAV_{t,i}}{\sum_{i=1}^n MN_{t,i}} - 1$$

Where R_{ct} = t 일의 C유형 일 수익률

$NAV_{t,i}$ = t 일의 C유형에 속한 n 개 펀드의 순자산 총액

$MN_{t,i}$ = t 일의 C유형에 속한 n 개 펀드의 수정순자산 총액

1.7. 위험지표 및 위험조정지표

[표 0-1] 위험지표

지표명	설명	산식
표준편차	변동성의 측정 단위가 수익률의 단위와 일치하고, 통계량의 분포 추정이 가능한 점 등 우수한 통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대표적인 위험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text{표준편차}) = \sqrt{\frac{\sum(R_i - \bar{R}_i)^2}{N - 1}}$ <p> R_i: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 \bar{R}_i: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평균 N: 분석에 사용된 주간수익률의 개수 </p>
하락위험도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상향 위험(upside risk)보다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하향 위험(downside risk)에 보다 민감하다. 하락위험도는 이를 반영하여 펀드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보다 낮은 하향 위험만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text{하락위험도}) = \sqrt{\frac{\sum_{i=1}^N (R_i - R_N^F)^2, \text{ where } (R_i < R_N^F)}{N - 1}}$ <p> R_i: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 R_N^F: 산출 시점의 무위험 주간수익률 N: 분석에 사용된 주간수익률의 총 개수 </p>
결정계수	펀드 수익률과 벤치마크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1에 가까울수록 펀드의 수익률이 벤치마크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큰 것을 의미한다.	$(\text{결정계수}) = (\rho_{im})^2 = \left(\frac{\left[\frac{\sum_{i=1}^N ((R_i - \bar{R}) \times (R_i^M - \bar{R}^M))}{(N - 1)} \right]}{\sqrt{\frac{\sum_{i=1}^N (R_i - \bar{R})^2}{(N - 1)} \times \sqrt{\frac{\sum_{i=1}^N (R_i^M - \bar{R}^M)^2}{(N - 1)}}}} \right)^2$ <p> ρ_{im}: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과 벤치마크 주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R_i: 일정 기간 동안 펀드의 주간수익률 R_i^M: 일정 기간 동안 벤치마크 지수의 주간수익률 \bar{R}: 일정 기간 동안 펀드 주간수익률의 단순평균 \bar{R}^M: 일정 기간 동안 벤치마크 지수 주간수익률의 단순평균 </p>
회귀식베타	개별 펀드의 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익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개별 펀드의 수익률이 종속변수가 되고 해당 벤치마크 수익률이 독립 변수가 되는 회귀 모형을 설정하여 베타를 추정한다. 즉, 베타가 1에 가까울수록 개별 펀드의 변동성이 벤치마크의 변동성과 같이 움직이며, 베타 값이 1 이상인 경우 개별 펀드의 변동성이 벤치마크 변동성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베타}) = \frac{\sum[(R_i - \bar{R}_i) \times (R_m - \bar{R}_m)]}{\sum(R_m - \bar{R}_m)^2}$ <p> R_i: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 \bar{R}_i: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평균 R_m: 일정 기간 동안 벤치마크의 주간수익률 \bar{R}_m: 일정 기간 동안 벤치마크의 주간수익률의 평균 </p>
트레킹에러	트레킹에러는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베타 값이 1인 경우 개별펀드의 변동성과 벤치마크의 변동성은 같지만, 매 시기 수익률의 움직임이 똑같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트레킹에러를 산출하여 각 시점에서 개별 펀드와 벤치마크 수익률 간의 차이를 추적한다.	$(\text{트레킹에러}) = \sigma(R_i - R_m)$ <p> R_i: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 R_m: 일정 기간 동안 벤치마크의 주간수익률 </p>

[표 0-2] 위험조정지표

지표명	설명	산식
변동계수	변동계수는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평균수익률로 나누어 줌으로써, 표준편차를 정규화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값으로 각 펀드가 수익률에 비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며, 속성이 다른 여러 종류의 펀드를 비교한다.	$(\text{변동계수}) = \frac{S.D.(R_i)}{\bar{R}_i}$ <p>\bar{R}_i: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평균 $S.D.(R_i)$: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p>
샤프지수	샤프지수는 투자자가 한 단위의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초과 수익률을 보상받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샤프지수를 이용하여 여러 펀드의 자산운용성과를 비교한다.	$(\text{샤프지수}) = \frac{\bar{R} - \bar{R}^F}{S.D.(R)}$ <p>\bar{R}: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평균 \bar{R}^F: 일정 기간 동안 무위험 주간수익률의 평균 $S.D.(R)$: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p>
수정샤프지수	펀드의 평균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샤프지수로 성과를 측정하면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샤프지수가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 수정샤프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text{수정샤프지수}) = \begin{cases} \frac{\bar{R} - \bar{R}^F}{S.D.(R)} & \text{if } \bar{R} - \bar{R}^F \geq 0 \\ (\bar{R} - \bar{R}^F) S.D.(R) & \text{if } \bar{R} - \bar{R}^F < 0 \end{cases}$ <p>\bar{R}: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평균 \bar{R}^F: 일정 기간 동안 무위험 주간수익률의 평균 $S.D.(R)$: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p>
트레이너지수	트레이너지수는 체계적 위험 한 단위당 어느 정도의 초과 수익률을 보상받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벤치마크가 서로 다른 펀드를 비교할 때 유용하다.	$(\text{트레이너지수}) = \frac{\bar{R} - \bar{R}^F}{\text{Beta}}$ <p>\bar{R}: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평균 \bar{R}^F: 일정 기간 동안 무위험 수익률의 평균 Beta: 회귀식 베타 추정 값</p>
젠센알파	체계적 위험(CAPM의 베타)으로 설명되지 않는 개별펀드의 고유한 수익률(체계적 위험이 조정된 수익률)을 젠센알파로 정의하고, 다음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젠센알파를 추정한다.	$(R_i - R_i^F) = \alpha + \beta(R_i^M - R_i^F) + \epsilon_i$ <p>R_i: 일정 기간 동안 펀드의 주간수익률 R_i^M: 일정 기간 동안 벤치마크 지수의 주간수익률 R_i^F: 일정 기간 동안 무위험 주간수익률 i: 주간수익률 산출 시점</p>
정보비율(IR)	수익률과 위험 모두 상대적 지표를 활용하여, 벤치마크를 초과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할 때 쓰이는 지표이다.	$(\text{정보비율}) = \frac{\left(\frac{\sum_{i=1}^N (R_i - R_i^M)}{N} \right)}{S.D.(R_i - R_i^M)}$ <p>R_i: 일정 기간 동안 한 펀드의 주간수익률 R_i^M: 일정 기간 동안 벤치마크의 주간수익률 N: 분석에 사용된 주간수익률의 개수 $S.D.(R_i - R_i^M)$: 벤치마크 초과수익률의 표준편차</p>

* 당사 무위험수익률의 경우, 2016-06-30까지는 KIS MMI(종합)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KIS 통안채(1Y)지수로 변경함

<p>MDD (Maximum Drawdown)</p>	<p>일정기간동안 펀드의 누적된 최대 손실을 측정하는 지표. 하락국면에서 운용성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MDD(최대 손실률)가 작을수록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p>	$MDD_{t,t-k} = \frac{MAX(P_{t,j} - P_{t,i} , 0)}{P_{t,i}}$ <p>$P_{t,j}$: t-k에서 t기간 동안의 가격(단, $P_{t,j} < P_{t,i}$, $j > i$) $P_{t,i}$: t-k에서 t기간 동안의 가격 $MAX(A,B)$: A와 B 중에 최댓값</p>
---------------------------------------	--	--

<p>Winning Ratio</p>	<p>펀드가 일정기간 동안 비교대상(벤치마크, 유형 수익률 등)을 outperform한 횟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 초과성과의 정도가 아닌 초과성과의 빈도를 나타내므로 꾸준히 비교대상을 outperform 했는지 판단할 때 사용된다.</p>	$WR = \frac{\sum_{i=1}^N k_i}{N}, k_i = \begin{cases} 1 & \text{if } R_{fund,i} > R_{BM,i} \\ 0 & \text{if } R_{fund,i} \leq R_{BM,i} \end{cases}$ <p>N: i 기간의 총 갯수 $R_{fund,i}$: i 기간 펀드 수익률 $R_{BM,i}$: i 기간 비교대상(벤치마크) 수익률</p>
--------------------------	--	--

* 당사 무위험수익률의 경우, 2016-06-30까지는 KIS MMI(종합)를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KIS 통안채(1Y)지수로 변경함

2. 펀드Rating

2.1. KFR 펀드등급 개요

- 한국펀드평가의 펀드등급 산출 대상 및 등급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2-1] 펀드 등급 산출대상 및 등급 개요

구 분	상세 설명
대상 펀드	공모펀드 중 운용펀드, 자펀드, 일반펀드
대상 유형	KFR 대표 유형에 대하여 해당 개별 펀드 등급을 산출
등급 주기	월 1회 (매월 초 영업일)
등급 기간	1년/3년/5년 등급
등급 단계	5등급 단계로 가장 우수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

- 펀드 등급은 운용사성과, 펀드성과, 펀드성과의 지속성의 3개의 요소로 나누어진다.

[표 2-2] 등급 요소별 의미 및 대상 지표

등급 요소	요소의 의미	대상 지표
운용사성과	펀드 성과의 기반 요소 공유 ⁷	운용사의 수정샤프비율 ⁸
	- 운용철학 및 전략	- 월간수익률 기준 1년/3년/5년
	- 리서치 조직(Buy-Side Analyst)	
	- 리스크 조직	
펀드성과	Model Portfolio	
	펀드매니저의 성과	펀드의 수정샤프비율
	- 매니저 Skill	- 월간수익률 기준 1년/3년/5년
펀드성과의 지속성	- 운용전략 및 스타일	
	펀드매니저의 성과 지속성	펀드의 수정샤프비율 %순위의 변동성 ⁹
		- 주간수익률 기준 1년/3년/5년

⁷ 동일한 운용사의 펀드는 운용철학 및 리서치/리스크 조직 등 펀드 성과에 기반을 공유함. 따라서, 운용사 내 펀드는 유사한 성과를 보이며, 일시적으로 운용사성과와 괴리를 보인다 하더라도, 향후 운용사성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함.

⁸ 운용사의 수정샤프비율은 한국펀드평가의 유형분류방법론에 따름.

⁹ 매 분기별 펀드 수정샤프지수(주간수익률을 이용한 3개월 지표)의 동일유형 내 %순위를 이용하여, 펀드성과의 지속성(수정샤프비율 %순위의 변동성)을 산출함. 예를 들어, 1년 성과지속성은 4개 분기의 수정샤프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 각 대상 지표의 성과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 운용사성과: 유형 내에서 가장 낮은 운용사성과 표준점수¹⁰를 부여함.
 - ❖ 펀드성과: 해당 펀드는 등급산출 대상에서 제외함
 - ❖ 펀드성과의 지속성: 유형 내에서 가장 낮은 펀드성과의 지속성 표준점수를 부여함.

- 펀드 등급은 등급 요소별 등급과 전체 등급 등 총 4개의 등급을 생성한다.
 - ❖ 등급 요소별 등급은 대상 지표값을 한국펀드평가 표준화 방법론에 따라 표준점수(Score)를 산출한 후 표준점수에 따라 %순위를 산출함.
 - ❖ 전체 등급은 등급 요소별 표준점수를 가중평균(요소별 가중치)한 전체 표준점수에 따라 %순위를 산출함.
 - ❖ 요소별 가중치는 운용사성과 20%, 펀드성과 50%, 펀드성과의 지속성 30%임.

¹⁰ 표준점수 산출 시 대상 지표 값이 없는 펀드는 제외하고 표준화 방법론에 따라 산출함. 이후 대상 지표 값이 없는 펀드에 대하여 산출된 표준점수 중 가장 낮은 표준점수를 부여함.

3. 자료제공 및 공시

3.1. 평가 자료의 제공 및 공시

- KFR 평가 자료는 KFR 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며, 특정 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성하지 않는다.
- 평가업무를 위해 취득한 집합투자기구의 원자료를 가공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자료 제공 시 금융투자협회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별 편입종목의 상위 10개를 초과하여 공개하지 않는다.